

No.20170607-001

제목: 그녀가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는 새들

저자: 누마타 마호카루

페이지수: 389

장르: 소설

출간일: 2009년 10월 01일



<내용소개>

애증과 악연, 후회로 점철된 어느 남녀의 왜곡된 순애보를 그려낸 장편 미스터리 소설

이혼, 승려, 회사 경영자, 그리고 파산. 저자는 대인공포증으로 힘들어하다가 글쓰기를 시작했다. 인생의 단맛 쓴맛을 골고루 경험하고 50대 중반이라는 늦은 나이에 등단한 '누마타 마호카루'의 이력이다. 그녀의 작품들은 인간의 악의와 욕망을 적나라하게 파헤친다는 특징이 있다.

2009년에 발표한 《그녀가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는 새들》도 비슷하다. '토와코'는 15살 많은 남자 '진지'와 5년째 동거 중이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었혀살면서, 틈만 나면 8년 전 헤어진 '쿠로사키'를 떠올린다. 말쑥한 외모에 늘 다정한 말과 선물을 안겨주던 쿠로사키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그는 야망을 위해 토와코를 한껏 이용하고는 비참하게 버렸다.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무기력하게 살던 토와코는 진지를 만났다. 자신을 좋아한다며 접근하는 진지를 유혹했고 결국 같이 살게 되었다. 하지만 토와코는 진지를 혐오한다. 볼품없는 외모와 천박한 행동거지, 가난한 데다 일 처리도 서툴러 뭐든 망쳐버리는 진지 같은 남자는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토와코는 고장 난 시계 때문에 백화점에 갔다가 '미즈시마'라는 남자를 알게 된다. 아내와 자식이 있는 유부남이지만 쿠로사키와 닮은 구석이 있었다. 토와코는 미즈시마와 육체적 관계를 갖게 되고, 실수로 쿠로사키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그가 5년 전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란다. 동시에, 자신을 미행하는 것 같은 진지가 수상쩍다. 이후 진지의 방에서 쿠로사키가 자기에게 선물로 줬던 귀걸이를 찾아낸데다가, 쿠로사키의 부인을 만난 후에는 쿠로사키 실종 사건의 범인이 진지라고 확신한다. 최근 미즈시마에게 이상한 전화를 걸고 악의적인 물건들을 보낸 사람도 진지였다. 토와코는 이번엔 미즈시마가 살해당할까 봐 불안해진다. 쿠로사키를 죽였다고 순순히 털어놓는 진지에게서 미즈시마를 지키려면 헤어지는 수밖에 없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다. 방해하는 진지를 죽이겠다던 생각은 미즈시마를 향한 왜곡된 욕망으로 바뀐다. 가족에게 돌려보내는 대신, 죽여서라도 온전히 차지하고 싶어진 것이다. 마침내 실행에 옮기려는 토와코에게 불현듯 떠오르는 핏빛 기억은, 5년 전 쿠로사키를 죽이는 자신의 모습이었다.

초반부, 독자들은 진지를 혐오하는 토와코를 더 혐오할 것이다. 쿠로사키의 실종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흥미로워지고, 은폐하려던 진실이 전부 밝혀진 다음에야 인물들을 이해할 수 있다. 진지

의 사랑 방식은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만큼 맹목적이고 헌신적이어서 이것을 사랑이라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만든다. 작가의 섬세한 심리묘사와 치밀한 구성이 빛나는 소설이다.

<저자소개>

누마타 마호카루

1948년 오사카에서 태어났다. 주부, 승려, 회사경영자 등 특이한 이력을 거쳐 처음 쓴 소설 <9월이 영원히 계속되면>이 제5회 호러서스펜스대상을 수상하며 56세에 등단하였다. 기타 작품으로는 《고양이 울음》, 《아미다사마》, 《유리고코로》 등이 있다.

No.20170607-002

제목: 고독한 밤의 코코아

저자: 다나베 세이코

페이지수: 297

장르: 소설

출간일: 2010년 02월 26일



<내용소개>

다채로운 삶, 공감대, 인생의 교훈을 연애스토리에 부드럽게 녹여낸 12편의 이야기

단편소설의 명수, 오사카 출신에 간사이 사투리로 연애 소설을 쓰는 작가. 《조제와 호랑이와 물고기들》로 유명한 일본의 대표작가 '다나베 세이코'를 수식하는 말이다. 단순한 스토리를 특유의 유머로 명쾌하게 풀어내는데, 이야기를 관통하는 관조적인 시선이 적절히 무게를 맞춘다. 《고독한 밤의 코코아》는 다나베 세이코의 작품 중 가장 사랑 받은 단편을 엄선한 작품집이다.

작가는 이제 막 연애전선에 뛰어들, 다소 어설퍼서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하는 20대 여성들의 중심으로 12가지 이야기를 그려냈다. 그들이 사랑 때문에 보낸 고독한 시간을, 달콤함과 약간의 씁쓸함을 함께 지니고 있는 코코아처럼 풀어낸 이야기들이기에 여타의 연작집과 달리, 목차를 봐도 표제작은 없다.

들어서 아는 것은 많은데 실전 경험은 적은 연애초보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펼쳐진다. 사귀기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상과 다른 현실에 실망하고, 자기 감정까지 헛갈리게 되자 좋아하던 남자를 갑자기 밀어내고는 나중에 후회하는 《행복은 돌이 되었다》, 《너무 늦었습니까?》의 '아사'는 여자는 마음은 복잡하지만 사랑에 빠진 여자는 단순하다는 점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아버지의 친구와 사랑에 빠진 《봄을 알리는 새》의 '미도리'는 큰 나이 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지닌 매력을 발견하고 푹 빠져 있다. 좋아하는 남자를 매번 친구에게 빼앗기자 이번에는 그녀 몰래 사랑하겠다고 결심하는 여자, 일 밖에 모르고 살다가 연애에 빠지면서 다른 여자처럼 남자에게 기대지는 않겠다며 결의하는 여자도 등장한다. 불륜이었지만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마지막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개양귀비 사랑》처럼 슬픈 이야기도 있다.

모두 남녀의 사랑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니다. 《치사'라는 여자》에는 이런 문장이 나온다. '치사는 나름대로 나이화장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이 나이가 되면 자기에게 어울리는 이미지를 설계하고 그 이미지에 가까워지도록 수련해야 한다. 나는 그것을 '나이화장'이라 부른다.' 해가 갈수록 자신의 나이를 의식하게 되는 여자들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봤을 만한 소재를 독특한 말로 풀어내기도 한다.

분량이 짧아 집중해서 읽을 수 있으며, 재치 있는 비유와 예상하지 못한 결말들이 무릎을 탁 치

게 만든다. 이 책은 1978년 발간된 것을 2010년에 복간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읽어도 40년에 가까운 시대 차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자와 남자, 사랑의 포인트를 짚어내면서 보편적인 삶의 교훈을 담아낸 수작으로, 한국에서도 2013년에 출간된 적이 있다.

<목차소개>

봄을 알리는 새 / 충직한 연인 / 비가 내리고 야근하던 밤 / 에이프릴풀 / 봄과 남자의 베스트 / 너무 늦었습니까? / 개양귀비 집 / 사랑의 통조림 / '치사'라는 여자 / 행복은 돌이 되었다 / 부르르 씨 / 나카교 구 오시코지 거리

<저자소개>

다나베 세이코

1928 년 오사카에서 태어났으며 쇼인여자전문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였다. 1964 년 《감상여행》으로 제 50 회 아쿠타가와 상, 1987 년 《꽃 같은 옷 벗으니 휘감기네》로 여류문학상, 1993 년 《비뚤어진 잇사(ひねくれ一茶)》로 요시카와 에이지 문학상과 1994 년 제 42 회 기쿠치간상, 《도톤보리에 비 내리는 날 헤어진 후》로 1998 년 제 26 회 이즈미교카상과 1999 년 제 50 회 요미우리 문학상을 받는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을 갖고 있다. 1995 년 시주호쇼(紫綬褒章) 훈장, 2008 년에 문화훈장을 받았다.

No.20170607-003

제목: 내 인생,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저자: 야마자키 하지메, 이와키 미즈호

페이지수: 193

장르: 비즈니스, 경제

출간일: 2017년 05월 26일



<내용소개>

100세 인생의 필독서, 생애에 필요한 저축액수를 계산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배운다

우리가 태어나서 숨을 거두기까지, 생애에 필요한 돈은 얼마나 될까? 부모의 지원을 받으며 살아가는 20대 초·중반까지는 저축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사회에 나와 직업을 갖고 경제적 자립을 하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무리 돈을 벌어도 부족하다. 맞벌이를 하고 매달 조금씩이라도 저축하려 하지만, 자녀가 성장하며 점점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쉽지 않다. 수입이 비정기적인 프리랜서나 정년을 코앞에 두고 뒤늦게 노후준비의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들은 돈을 모으기 더 힘들다. 회사가 단위 별로 필요한 자금을 계획하여 사용하듯, 우리도 생애에 필요한 돈을 파악하여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 타이틀에서는 두 명의 금융전문가가 인생설계의 기본 공식을 통해 돈을 늘리는 방법을 알려준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잠재우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저축액수를 알아내기까지 단 1분이면 충분하다.

본문은 3step을 차례로 따라가도록 구성되어 있다.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번 돈을 차곡차곡 모으고, 그렇게 모은 돈을 조금씩 찾아 써 없애는 것이 '돈의 흐름'이다. 첫 단계는 계산식을 활용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저축 액수를 알아내는 것이다. 자신의 연 수입, 노후 생활 비율, 연금액수, 현재의 자산, 은퇴 시기, 예상 수명을 가정하여 식에 넣으면 된다. 현역으로 일할 때의 평균 생활비에 대해 노후의 평균 생활비는 어느 정도 비율로 할 지, 또 그것을 달성하려면 현재 현역 일 때 수입의 어느 정도를 저축해야 할지 '필요저축률'을 구해낼 수 있다.

2단계는 산출한 필요저축률을 달성하는 과정이다. 지금 갖고 있는 돈을 미래로 옮겨놓는 것이 곧 저축이다. 노후를 대비한다며 보험을 너무 많이 들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고, 전반적으로는 고정비와 주거비를 재검토해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야 한다.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 특징을 알려줌으로써 경각심을 갖게 하고, 누구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저자만의 돈 모으기 노하우도 공개한다.

마지막 3단계는 간단하고 올바르게 돈을 불리는 방법이다. 자산운용상품은 3개면 충분하고, 회사원이나 자영업자처럼 과세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운용 방법을 설명한다. 효율적으로, 보다 확실하게 필요저축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노년에 가까워지면서 점점 경제적,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지기 쉽다. 자기에겐 알맞은 생애저축 규모를 알아낼 수 있는 간단명료한 기본공식, 그것을 활용하여 안심할 수 있는 미래를 이뤄나가는 길을 담은 유용한 가이드북이다.

<목차소개>

제 1장: 필요한 저축액을 계산한다 [Step 1] 인생설계 기본공식의 구조와 사용방식
(인생의 돈의 흐름은, '별고, 모으고, 쓰는 것'이 기본 / 인생설계의 기본공식을 살펴봅시다 / 인생설계의 기본공식을 구체적으로 활용해봅시다 등)

제 2장: 필요한 저축액을 모은다 [Step 2] 필요저축률을 확실히 달성하는 방법
(저축이란, 현재의 돈을 미래로 이동시키는 것 /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의 공통 특징은? / 누구나 필요저축을 달성할 수 있는 이와키 스타일 저축 노하우)

제 3장: 저축을 적절히 운용한다 [Step 3] 심플하고 올바르게 돈을 늘리는 방법
(운용 목적은 '효율적으로' '더 확실하게' 돈을 늘리는 것뿐 / 심플하게 올바른 운용법이란 무엇인가/ 운용상품은 3개만 해도 괜찮다 등)

<저자소개>

야마자키 하지메

경제평론가, 라쿠텐증권 경제연구소 객원 연구원, 국가공무원 경제조합 연합회 자산운용위원회 위원, (주) My Benchmark 대표.

1958년 홋카이도에서 태어났으며, 1981년 도쿄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하였다. 미쓰비시 상사, 노무라 투자신탁, 스미토모 생명보험, 스미토모 신탁 은행, 슈로더 투자신탁, NB 인베스트먼트 테크놀로지, 메릴린치 증권, BNP 파리바 증권, 야마이치 증권, 다이이치칸교 아사히 투신투자 고문, 메이지 생명보험, UFJ 종합연구소 등 12번의 이직을 거쳐 현직을 맡고 있다. 자산운용 및 경제전반 분석·평론 전문가이다. 《펀드 매니지먼트》, 《전면개정 매우 간단한 돈 운용기술》, 《확정거출연금의 교과서》, 《어려운 건 모르겠지만, 돈을 불리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등의 저서가 있다.

이와키 미즈호

파이낸셜 플래너, CFPR 인정자. 게이오기쥬쿠대학을 졸업하였다. NHK 마츠야마 방송국을 거쳐 프리 아나운서로 활동하다가 생명보험회사를 거쳐 FP로 독립하였다. 개인상담, 강연, 집필활동을 하고 있다. <C(저축)리그>, <사무라이즈 스터디>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부터라도 해결할 수 있다! 돈과 인생의 상담실>을 동양경제온라인에서 연재 중이다. 저서로는 《거기, 확실히 대답해주세요! <돈>에 대한 사고방식, 이대로 괜찮은지 걱정입니다》가 있다.

No.20170607-004

제목: 인공지능은 어떻게 '명인'을 뛰어 넘었을까

저자: 야마모토 잇세이

페이지수: 288

장르: 과학(IT)

출간일: 2017년 05월 11일



<내용소개>

장기를 두는 AI '포난자'의 개발자가 이야기하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본질적 차이'

2008년부터 최근 10년간은 인공지능 역사에 큰 획을 그은, 매우 중요한 시기다. 인간을 교재 삼아 학습하는 '딥 러닝' 기술이 발달하고, 컴퓨터로도 풀 수 없었던 문제들이 계산 가능한 문제들로 바뀌었다.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실시간 자동번역 시스템은 점차 정교해지면서 언어 장벽을 낮추고 있다. 매장에 서비스 응대 직원들이 사라지고 무인운전자 자동차들이 도로 위를 활보하는 시대도 머지 않은 것 같다. 인공지능의 활약상 중 눈에 띄는 한 가지는, '지성의 상징'이라 여겨지던 인간 고유의 영역에 진입한 것이다. 체스, 장기, 바둑 등 고도의 집중력과 사고력을 요하는 분야에서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이 전문가들을 제치고 승리했다.

AI는 어떻게 '명인'들을 넘어서게 된 것일까? 이 책의 저자는 일본에서 장기 고수를 이겨 화제가 되었던 장기를 두는 프로그램 '포난자(Ponanza)'를 개발한 엔지니어다. 지켜보는 이들에게 충격을 안긴 AI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서, 인간과 인공지능의 미래를 이야기한다. 프로그램 수준을 벗어나고, 과학이라는 틀에서 벗어나고, 천재를 넘어서고, 인간을 넘어서는 4단계를 차례로 제시한다.

본문은 총 4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성공시키기 위해 어떻게 '기계 학습'을 활용하였는가, 세부구조를 이해함으로써 전체 구조를 파악한다는 환원주의 과학을 벗어나는 데 '심층학습'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천재를 스승 삼아 '강화학습'에 나선 알파고와 포난자가 마침내 그들을 넘어서면서 앞의 본질에 대해 어떤 화두를 던졌는지 알기 쉽게 설명한다. 대안을 탐색하고 평가해 최적의 답을 찾아내는 능력인 '지능'면에서는 이미 AI가 인간을 훨씬 앞질렀다. 대신 목표를 정하는 능력인 '지성'은 인간이 우월하다. 그러나 조만간 '지성'의 영역조차 AI가 인간을 능가하게 될 것이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 AI가 딥러닝을 통해 지성을 획득하면서 인류의 보편적인 윤리관과 가치관도 함께 배우게 되리라는 사실이다.

놀라운 프로그램을 개발한 당사자가 바라보는 AI의 현재와 미래는 희망적이지도, 비관적이지도 않다. 인공지능이 주역으로 등장할 시대를 향해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하지도 않는다.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존하는 사회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꼭 한 번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목차소개>

제 1장: 장기의 기계학습 - 프로그램으로부터 졸업

제 2장: 흑마술과 딥 러닝 - 과학으로부터 졸업

제 3장: 바둑과 강화학습 - 천재로부터 졸업

제 4장: 윤리관과 인공지능 - 인간으로부터 졸업

권말부록: 구글의 인공지능 vs. 인간, 세기의 대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저자소개>

야마모토 잇세이

1985 년생, 프로 기사에게 최초로 승리한 현재 최강 장기 프로그램 <포난자(Ponanza)>를 개발했다. '포난자'는 주요 컴퓨터 장기 대회에서 4 연패 중이다. 아이치가쿠인대학 특임 준교수, 도쿄대학 첨단과학기술연구센터 객원 연구원, HEROZ(주) 리드 엔지니어를 맡고 있다. 이 책이 첫 저서다.

No.20170607-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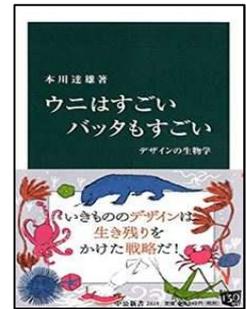
제목: 성게는 대단해, 메뚜기도 대단해

저자: 모토카와 다츠오

페이지수: 321

장르: 과학(생물)

출간일: 2017년 02월 19일



<내용소개>

독자적인 신체구조를 만들며 생존한 다양한 생물을 통해 살펴보는 '디자인의 생물학'

'동물'이라고 하면 인류와 같은 척추동물을 먼저 떠올린다. 그러나 약 150만종의 동물 중 척추동물은 5%에 불과하다. 동물계는 34개나 되는 '문'으로 분류되며 그 안에 '척추동물문'이 있다. 즉 척추동물과 상이한 신체구조를 지닌 그룹은 33개나 되는 것이다. 동물의 몸에는 살아온 환경, 생존방법, 역사 등이 반영되어 있다. 저자는 전작 《코끼리의 시간, 쥐의 시간》에서 몸집 크기가 민첩성, 수명, 시간의 체감속도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이즈의 생물학'을 제시했다. 이번에는 신체 구조에 숨겨진 '디자인의 생물학'을 소개한다.

이 책의 주인공은 자포동물·절지동물·연체동물·극피동물·척삭동물 등 다섯 가지 문(그룹)이다. 자포동물문은 작은 돌출형 세포를 갖고 있는 해파리, 산호 같은 생물들이다. 여기서는 산호를 통해 자포동물문의 신체구조를 알아보고, 산호초와 공생함으로써 얻는 이익 등을 설명한다. 절지동물문에는 곤충류, 갑각류, 다지류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 곤충을 집중 조명한다. 곤충이 성공적으로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를 키틴으로 이뤄진 외골격, 걷고 뛰고 날 수 있는 운동능력, 신체기관, 신체 사이즈 등에서 찾는다. 연체동물문은 절지동물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종을 포함한다. 대체로 입과 항문이 따로 있으며 몸은 부드럽다. 조개와 달팽이 같은 종류는, 껍질이 석회질로 된 껍질로 둘러싸여 있다. 본래 껍질은 밋밋하였으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요철이 생기거나 나선형으로 변해갔다. 오징어와 문어는 껍질에서 벗어나 진화한 연체동물의 대표주자다. 극피동물문은 선조들처럼 고착생활을 하거나 모래나 바위 속에서 약간 움직일 뿐이다. 불가사리와 해삼을 대표적인 케이스로 선정해 각각 설명하였기에 본문에서는 다른 동물문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척삭동물문은 척추는 없으나 몸 가운데에 중심을 갖고 있는 유형으로, 크게 보면 척추동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저자는 멍게를 중심으로 척삭동물의 집단생활 특징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척추동물아문'을 짧게 다루었다.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가 이에 해당된다. 그 중에서 사지를 자유롭게 움직이며 육상 생활을 하게 된 과정을 살펴봐왔다.

징그러운 곤충도, 무생물 같은 불가사리도, 맛있게 먹는 조개나 오징어도 모두 치밀한 신체 구조

를 갖고 있다. 불합리해 보이지만 생존을 위해 가장 합리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들의 내부를 살펴보자. 교과서로는 배우기 어려운 내용을, 전문가가 알기 쉽게 가르쳐주는 유익한 책이다.

<목차소개>

- 제 1장: 산호초와 공생하는 세계 - 자포동물문
- 제 2장: 곤충 대성공의 비밀 - 절지동물문
- 제 3장: 조개는 왜 나선형일까 - 연체동물문
- 제 4장: 불가사리는 왜 별 모양일까 - 극피동물문 1
- 제 5장: 해삼 천국 - 극피동물문 2
- 제 6장: 멍게와 군체생활 - 척삭동물문
- 제 7장: 사지동물과 육상 생활 - 척추동물아문

<저자소개>

모토카와 다츠오

1948년 미야기 현에서 태어났으며, 도쿄대학 이학부를 졸업하였다. 동 대학 조교, 류큐대학 조교수, 듀크대학교 객원 조교수를 거쳐 1991년부터 도쿄공업대학 이학부 교수로 재직하였다. 2013년 퇴직하고 현재 도쿄공업대학 명예교수를 맡고 있으며 전문분야는 동물생리학이다. 저서로는 《코끼리의 시간, 쥐의 시간》, 《산호와 산호초 이야기》, 《생물학적 문명론》 등 다수가 있다.

No.20170607-006

제목: 영어로 일류를 키워내는 방법: 사교육 없이 딸을 하버드 대학교에 보낸 엄마의 영어 교육 비법

저자: 히로츠루 마리

페이지수: 256

장르: 자기계발

출간일: 2017년 05월 25일



<내용소개>

초등학생도 대학입시수준의 영어를 술술 말한다? 자녀의 영어실력을 향상시킬 비법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은 독해와 문법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애초부터 큰 틀이 한 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니, 교사나 학교 차원에서 보완하려고 해도 쉽지 않다. 학교에서 10년 이상 영어를 배웠어도, 직장인이 되어서도 영어 때문에 사교육을 받는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진다. 이것은 일본도 마찬가지다. 2020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학습지도요령에서 가장 크게 바뀌는 과목이 '영어'다. 초등학교부터 영어를 정식과목으로 채택해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능력을 고루 가르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책에는 정부보다 한 발 앞서 나간 엄마의 교육비법이 담겨 있다. 지방의 중·고교 출신인 딸을 사교육 없이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 보낸 그녀는 직접 영어학원도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 평범한 가정의 학생들이며, 수업은 주1회 75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영어의 읽기·듣기·말하기·쓰기 실력 뿐 아니라 국어실력까지 향상된다는, 궁극의 '일석오조' 학습법, 대체 무엇일까?

본문은 유아부터 초등학생에게 특히 효과적인 <상식 파괴 영어학습법>과 부모를 위한 <완전 매뉴얼>로 이루어져 있다. 영어를 접해 본 경험이 거의 없는 어린 아이도 단기간에 영어를 술술 읽고 말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영어를 영어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낭독법, 초등학교 4년 동안 배울 단어를 단 3일 만에 마스터하는 단어 암기법, 국어의 논리력을 강화하고 영어에 그대로 응용하는 방법, 1분 동안 요점을 정리해 말하는 스피치 방법, 잘 만들어진 영어 문장을 교재 삼아 모방하면서 영어 작문 실력을 기르는 방법 등이다. 각각의 목적과 효과, 과정, 주의사항 등을 친절하게 알려준다. 대략적인 방향만 제시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매우 구체적이다. 사용할 교재, 필요한 기간, 도달할 수 있는 목표 수준까지 하나하나 제시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다. 하버드생이 만든 동영상과 음성 데이터도 같이 활용할 수 있다.

여기서 알려주는 영어학습법의 핵심은 '가정에서 이뤄지는 영어교육'이다.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

건 또한 가족이 화목하고 집안 분위기가 좋아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는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지 않는다. 옆에 앉아 눈을 맞추고 애정과 주의를 기울이면서 아이가 영어를 즐기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부모용 매뉴얼에 포함된 행동지침을 참고하자. 영어를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알려주고 싶다면, 이 책이 유용할 것이다.

<목차소개>

프롤로그: <설마>를 <대단하다>로 바꾼 “기적의 공부법” 공개

제 1장: 왜, 일류는 집에서 영어를 배우는 걸까

제 2장: 상식을 파괴하는 영어로 아이 키우기 완전 매뉴얼

제 3장: <일본어B>로 <영어 뇌>를 만드는 방법

제 4장: 하루 5분, 손쉽게 단어 암기하는 법 - 영어는 단어가 90%!

제 5장: 초등학생도 대학 입시 수준의 영어를 술술 읽는 <음독법>

제 6장: 하버드대학교 학생의 영어 문장을 따라 하면, 영어작문도 배울 수 있다

제 7장: 집에서 영어 <1분 스피치>를 잘하게 되는 방법

에필로그

프리미엄 특전: 하버드생이 만든, <영어 4기능>을 쉽게 익히는 동영상·음성 데이터 세트

<저자소개>

히로츠루 마리

블루마블 영어교실 대표. 일반사단법인 Summer in JAPAN(SIJ) 설립자 및 대표이사, (주) Dirigo의 대표이사. 와세다대학 제1문학부를 졸업하였다. 지금까지 영어교실과 다수의 세미나를 통해 3000명의 학생을 가르쳤다. 유아(4세)부터 고3까지 같이 배우는 무학년제를 도입한 획기적인 영어학원, 국제교류와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서머 스쿨, <부모의 능력>을 길러주는 세미나를 주축으로 활약 중이다. <기존의 수험 영어>가 아닌 <영어의 4기능(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를 높은 수준으로 훈련시킴으로써 수많은 학생이 영어검정1급과 준1급 합격하였다. 독자적인 <히로츠루 메서드®>는, <처음부터 고난도의 진짜 영어를 가르친다>는 발상에 기초한다. 초등학생도 대학입시수준의 장문을 읽을 수 있게 되는 충격적인 지도 방법이다. 누구든 실제 영어능력을 키울 수 있다며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18년간 학원에 다니지 않고 지방의 공립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거쳐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 합격한 장녀 역시 <히로츠루 메서드>의 혜택을 받은 것이다. 2013년에는 하버드대학교 학생이 일본의 학생들에게 영어 작문과 표현력을 가르치는 서머스쿨 <Summer in JAPAN>을 설립하였으며 2014년에는 경제산업성 <커리어 교육 어워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영어와 국어, 교양을 동시에 갈고 닦는 것이 기본이라고 이야기한다. 가정환경의 중요성을 보호자들에게 강조하는 한편, 누구든 문화자본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저서로는 《세계에서 통용되는 일류 육아법 - 지방 공립학교에서 학원에 다니지 않고 하버드에 현역 합격》이 있다.

* 홈페이지: <http://dirigo-edu.com/>

No.20170607-007

제목: 뇌를 조종하는 식사기술

저자: 이시카와 미치

페이지수: 180

장르: 건강

출간일: 2017년 04월 28일



<내용소개>

최상의 컨디션으로 일하고 여유를 즐길 수 있게 도와줄 중요한 식사기술을 전한다

“당신이 먹은 음식이 당신을 말해준다.” 우리는 ‘음식’의 중요성을 얼마나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을까? 그 때 그 때 허기짐을 해소하기 위해, 입맛이 끌리는 대로 섭취하는 음식들은 차곡차곡 몸에 쌓인다. 이것을 먹으면 어디에 좋다더라, 저것을 먹으면 어디에 좋지 않다더라 하는 말들이 무수히 쏟아지지만 이리저리 압박에 쫓기는 현대인들은 음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하지만 음식을 바꾸면 몸이 바뀐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에는 식이요법이 필수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보자. 음식을 바꾸면 뇌가 바뀐다.

유명한 운동선수들의 식사를 책임졌던 영양사가, 식사에 숨겨진 힘을 소개한다. 밥을 먹었는데도 곧 허기가 지고, 오히려 집중력과 의욕이 떨어지고 머리가 둔해진다고 느낀다면 당장 식습관을 체크해 봐야 한다. 장시간 근무에도 지치지 않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상의 컨디션은 식사로 만들어진다.

저자는 1장에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을 예로 들면서 잘못된 습관을 고칠 것을 권한다. 하루의 대부분을 사무실에서 보내는 직장인들은 오후쯤 나른해지고 단 것에 자꾸 손이 가게 된다. 혈당치가 떨어져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 단 것을 먹으면 일시적으로는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지만, 급격히 올랐던 혈당치가 잠시 후 급격히 떨어지면서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여름에 차가운 음식을 자꾸 먹으면 위장을 차게 만들어 소화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 식사를 통한 변화는 3개월이면 체감할 수 있다고 하면서, 2장에서는 뇌를 피곤하게 만드는 안 좋은 습관들을 알려준다. 평소에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를 자주 마시면 그만큼 카페인 효과는 미미해지며, 칼로리가 0에 가까운 청량음료는 인공감미료 때문에 살 찌기 쉽다. 3장은 컨디션을 좋게 만들어 성과를 극대화하는 식사 방법을 설명한다. 최소 15번 씹기, 결단을 내릴 때에는 아몬드 같은 견과류 섭취를 추천하면서 마른 체질이 대사질환에 걸릴 위험이 더 크다고 경고한다. 4장은 PT전날, 야근 피로, 아이디어를 내야 할 때, 술 마신 다음 날 등 상황 별로 도움이 되는 음식을 살펴본다. 5장에서는 마음껏 먹으면서 날씬해지는 식사 및 운동 방법을 다룬다. 공복 시에는 운동을 피하고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야채를 섭취해야 한다. 마지막 6장은 자신에게 필요한 보충제를 고르고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을 전한다.

인간의 행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먹는 것, 자는 것, 움직이는 것. 이것들을 소홀히 할수록 건강한 삶은 점점 멀어진다. 인생을 바꿀 식사 기술. 그 힌트가 이 책에 담겨 있다.

<목차소개>

- 제 1장: 식사가 변하면, 뇌가 변한다
- 제 2장: 뇌에 피로가 쌓이는, 해서는 안 될 식사 습관
- 제 3장: 퍼포먼스를 최대화한다! 뇌에 좋은 식사(HOW)
- 제 4장: 【상황 별】 무엇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
- 제 5장: 아무리 먹어도 배가 훌쭉한, 날씬해지는 식사방법과 운동
- 제 6장: 과도한 업무량을 극복한다! 보충제의 올바른 활용 방법

<저자소개>

이시카와 미치

Ishikawa Office LAC-U 대표, Body Refining Planner, 야마나시가쿠인대학 스포츠과학부 비상근강사. 병태영양 상담을 맡고 도쿄공업대학 근무를 거쳐 스포츠영양지도를 시작했다(센슈대학 미식축구부). 지금까지 주오대학 수영부, 트라이애슬론, 도카이대학 육상경기부 단거리, 스피드 스케이팅 오카자키 도모미 선수, 육상 남자 단거리 일본대표팀, 육상 단거리 스에츠구 신고 선수와 사노 유메카 선수, Denso 보트부, 체조 일본대표팀, 전일본 남자 배구팀, 피겨스케이팅 아라카와 시즈카 선수와 다카하시 다이ске 선수를 서포트하였다. 현재 쓰루문과대학 육상부, 도카이대학 부속 교세이고등학교 럭비부, Hakim Sani Brown 선수를 비롯한 많은 운동선수들의 영양지도를 담당하고 있다. 2010년~2014년 JOC 강화 스텝(의과학)이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부터 2016년 리오 올림픽까지 16년간 8번의 올림픽에서 선수들의 영양을 책임졌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몸 만들기>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저서로는 《일류 운동선수에게 배우는 <승부식!> 실천편》, 《Dr. 크루아상, 노화를 늦추는 식사 방법》, 《몸 안에서부터 아름다워지는 레시피》, 《21시 이후에 먹어도 살찌지 않는 야식》, 《주니어 선수의 승부식》, 《스포츠 선수를 위한 식사400》 등이 있다.

No.20170607-008

제목: 아장아장 아빠

저자: 요시타케 신스케

페이지수: 128

장르: 에세이(육아), 코믹

출간일: 2017년 04월 22일



<내용소개>

초보 아빠가 된 그림책 작가 '요시타케 신스케'의 폭소만발 육아 에세이

심플하면서도 독특한 그림체로 주목 받는 그림책 작가 '요시타케 신스케'가 초보아빠의 육아 에세이를 펴냈다. 첫 아이가 태어나던 순간부터 두 아들의 아빠가 되기까지 겪은 다양한 에피소드와 그에 대한 생각들을 4컷 만화에 담았다. 아기를 어떻게 안아야 할지 몰라 춤 동작처럼 자세를 연습하거나, 외출할 때면 아기만 안고 준비 끝이라 외치는 아빠와 필요한 짐을 가득 챙기느라 바쁜 엄마의 대조적인 모습이 공감과 웃음을 자아낸다. 둘 뿐이던 부부관계는 자녀가 태어나며 셋, 넷이 되고 크고 작은 변화를 겪게 된다. 육아방침을 두고 의견이 달라 싸우기도 하고, 모자 사이보다 부자 사이의 거리가 더 먼 것 같아 외로움을 느끼기도 한다. 지치고 힘들 때도 많지만 아이가 방긋 웃어주고 달려와 안기는 순간의 안도감과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아이가 커 가는 것을 바라보며, 문득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리고 그 입장을 이해하게 된다. 아장아장 아들과 함께 걸음마 하며 조금씩 성장해가는 아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낸 책이다. 일상의 폭소 포인트와 더불어 삶에 대한 고찰도 제시하고 있다. 누군가의 자녀, 누군가의 부모라면 모두 재미 있게 읽을 것이다.

<본문 이미지>

12 パパとパパの距離



028



029

1. 例えは外でお食事の時、
たいしてこんな感じに座りますよね。



2. 赤ちゃんが何を見ているかという...



赤ちゃんの視界



ママの視界

38 視界

3. ママとパパの視界。



2つのことがわかります。

- ① パパは誰にも見られていない
- ② パパはたいして「ママと赤ちゃん」を
セッテで見ている

4. つまり、ママの視界に「パパと赤ちゃん」がセッテ
入ると、ママにとってパパの「イメジン」が「家族の
一員感」が湧き上がるのではないしょうか。



パパはなるべく「ママの視界に入り込ませる位置」を
こころがけましょう。

086

087

<저자소개>

요시타케 신스케

1973년 가나가와 현에서 태어났으며, 츠크바대학 대학원 예술연구과 종합조형코스를 수료하였다. 일상의 평범한 순간들을 독특한 각도의 칸으로 나눠 그린 스케치 모음집, 아동도서의 삽화, 광고 미술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스케치집 《게다가 뚜껑이 없다》《결국 못하고 끝난 일》《좁아 두근두근》《조만간 플랜》, 삽화를 그린 <렛츠 시리즈>《몸 사용설명서》, 그림책 《이게 정말 사과일까?》《이게 정말 나일까?》등이 있다. MOE 그림책서점대상 1위, 볼로냐 라가치 상 특별상 등 다수의 수상 이력이 있다.

No.20170607-009

제목: 점술사의 집에서 보낸 여름방학

저자: 니시무라 유리(글), 마츠시마 마이무(그림)

페이지수: 206

장르: 아동 소설

출간일: 2014년 12월 09일



<내용소개>

신비한 점술사의 집에서 여름방학을 보내게 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은 방학을 무척 기다립니다. 숙제가 있긴 하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님과 낯선 곳을 여행하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친척 집에서 느긋하게 휴식을 취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듭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초등학교 5학년 소녀, '고바야시 마오'입니다. 프리랜서 방송 카메라맨인 아빠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마오 부녀는 여름방학을 맞아 이사를 하게 되는데, 새로운 집으로 향하던 도중 아빠가 뜬금없이 "점집에 들르자"고 합니다. 직업상 진실을 찾아 나서는 길이라며 자세한 이유나 상황 설명 없이 무작정 행동했던 적은 예전에도 많았습니다. 모든 것은 확실해진 다음 말해줄 수 있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 성향 덕분에 아빠는 재미로 점을 보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웬지 요즘 들어 기운이 없어 보이는 아빠가 마음에 걸렸던 마오는 순순히 따라갑니다.

아빠를 따라간 곳은 수국 집이라고 불리는, 근처에서 용하다고 소문나 유명한 점술사 '주홍빛의 데루코'의 저택이었습니다. 아빠는 점을 볼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마오라고 하면서 방 안에 혼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마오가 밖으로 나왔을 때, 아빠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꼭 가야 하는 곳이 있는데 마오를 같이 데려갈 수는 없다면서, 당분간 점술사 데루코의 집에서 지내라는 짧은 편지만 남겨두고 가버렸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떠난 아빠가 야속했지만 갈 곳이 없습니다. 마오는 결국 점술사의 집에서 여름방학을 보내게 됩니다. 사자 석상이 있고 새들이 지저귀는 넓은 정원이 딸린 이 곳에는 마오 외에도 또 다른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마오와 같은 학교 6학년인 '스즈키 소타'와 그리고 그의 형인 중학생 1학년 '스즈키 소라'는 알고보니 데루코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처음엔 낯선 곳에서 얼마나 있어야 할지 걱정하던 마오. 방 한 가운데 트램펄린을 설치하고 백덤블링을 연습하는 독특한 점술사 데루코, 쌀쌀맞지만 다정한 구석도 있는 소타, 어른스럽고 언제나 친절하고 함께 재미 있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빠는 왜 마오를 이곳에 맡기고 간 것일까요?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그 수수께끼도 조금씩 풀립니다. 사실 어른들의 비밀스러운 사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 소녀에게 닥친 갑작스러운 상황이 긴장감을 자아내다가, 점점 그 유쾌한 시간에 독자들도 몰입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에는 결혼과 가족에 대해 생각해 볼 계기까지 제공하는 소설입니다. 다가오는 여름방학에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목차소개>

1. 수국 집
2. 트램펄린
3. 무지개
4. 바비큐
5. 번개
6. 미아 조세핀
7. 아빠의 비밀

<저자소개>

니시무라 유리(글)

교토 출신, 교토교육대학을 졸업하고 교토 시내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현직 교사다. <넓은 하늘>로 제13회 창작 콩쿠르 츠바키 상 "동요·소년시부문"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피어라, 나팔꽃!》으로 제25회 히로스케 동화상을 받았으며, 《오물렛 가게에 어서 오세요!》《플라타너스 별장의 피아니스트》등이 작품이 있다.

마츠시마 마이무(그림)

오사카 출신. 디자인 계열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애니메이션 제작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애니메이터로 <카드파이트!! 벵가드>, <쫄쫄의 기묘한 모험>, <네가 있는 마을>, <Wake Up, Girls!>등에 참여했으며 삽화를 그린 것은 이 책이 처음이다.

No.20170607-010

제목: 카레라이스 노래

저자: 아라이 히로유키

페이지수: 22

장르: 아동 그림책

출간일: 2016년 09월 01일



<내용소개>

카레를 만드는 과정을 단순하고 재미 있게 노래를 그림책으로 옮겼습니다.

간단하게 만들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카레라이스. 엄마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만들어봅시다. 먼저 재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당근, 양파, 감자, 돼지고기를 적당한 크기로 깎둑깎둑 썰어줍니다. 그리고 냄비에 같이 넣어 볶습니다. 적당히 볶은 다음에는 재료가 잠길 정도로 물을 넣고 끓여 익혀줍니다. 그 다음에는? 드디어 카레를 넣습니다. 고체형 카레가 물에 녹으며, 우리가 아는 카레에 점점 가까워집니다. 농도와 간이 맞는지 맛을 보고, 후추를 뿌립니다. 어느덧 카레가 완성되었습니다. 오물오물 와구와구, 다 먹은 뒤에는 물 한잔을 꿀꺽꿀꺽. 맛있는 카레를 먹고 힘이 솟아납니다.

실제로 '카레라이스 노래'가 있습니다. 책 뒤 표지에는 노래의 악보와 가사, 율동 동작이 친절하게 소개되어 있으며, 그림 책은 노래 내용을 충실히 담았습니다. 8마디 분량을 3절까지 이어가는데, 그 짧은 길이에 카레의 재료를 준비하고 식사를 마치기까지의 과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쉽고 리듬감이 느껴지는 가사이므로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와 같이 그림책을 읽으며 노래를 불러 보면 정말 카레라이스를 만들어보고 싶어질 것입니다.

<본문 이미지>





<저자소개>

아라이 히로유키

그림책 작가. 1974년 도쿄에서 태어났다. 그림책 《냉장고》, 《물방울 풍당》, 《어느 쪽 손에 들어 있을까?》, 《네모네모 사각형》, 《데굴데굴 뽕!》, 《나무블럭 대작전》, 《쥐었다 폼다》, 《공공!》, 《유령과 숨바꼭질》 등의 작품이 있다.